

4사건 4인물을 통해 불잡을 절대언약

-복음으로 여는 창세기-

창세기 45:4-5, 마태복음 5:16

정운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여주셔서 생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불신양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 가지, 12 가지, 오만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축복까지 저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다락방전도운동의 주역이요,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이다. 하나님이 그 붙잡은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그것이 광야의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되고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 속에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와 가족, 성도, 친척, 친구들을 붙잡아 주세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해 주셔야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설득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오늘은 2022년 첫 주인데, 성경 66권 중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해 공부하겠다.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표와 응답의 흐름이 잘 맞을 것 같다.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원인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언약의 여정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영적인 근본과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도 그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는 모든 영적인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정확히 복음적으로 이해한다면 성공적인 언약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기준, 수준, 표준을 말씀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속 4인물들을 두고 ‘나도 저들처럼, 저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이렇

게 살아야 합니다. 나도 잘 안 되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보도록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다락방이고, 지교회이다. 즉, 창세기는 복음,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의 비밀이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언약적인 믿음의 원리를 4 사건과 4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1. 첫 번째로, 먼저 네 사건을 통하여 불잡을 절대언약과 절대진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사건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인도하시며 예정하셨다. 여러분의 인생도, 구원도 영세 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미래도 보이게 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없게 된다.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보게 되면 염려, 걱정할 것이 없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 언약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계속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캄캄하고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빛의 자녀가 되면 다 보이게 된다. 왜 답답하고 힘들고 갈등하는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문제나 어려움이어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질문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된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이 누려지는 것이다.

창세기는 천지만물과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기본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발전하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는 창조신앙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신화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진화론자들과 불신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우연히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우주만물이 만들어졌고, 자연만물의 질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추측일 뿐이고 창조신앙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주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령이 역사하니 창조가 믿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믿어지는 것이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다. 여러분은 우연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섭리를 믿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제 6일에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령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다.

(2) 두 번째 사건은 인간의 타락이다. 그것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양하고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원죄가 시작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내 중심, 내 뜻을 우선순위하는 것이다.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매일 같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매일같이 '강단 말씀'에 순종, 복종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된다. 사탄의 울무, 틀, 함정에 빠지고 운명, 사주, 팔자와 재앙과 저주와 사고를 피할 수 없다.

(3) 세 번째 사건은 노아의 방주이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였다. 창세기 6 장 사건이다. 그 결과 전 인류는 대홍수의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 시대시대마다 인간들은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불신앙과 불순종 뒤에는 반드시 재앙과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나자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퀴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 장 18 절에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퀴를 낼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다. 죄 때문에 땅을 흘려야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다.

(4) 네 번째 사건은 바벨탑사건이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은 세월이 지나자 또 다시 복음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웠다. 창세기 11 장 사건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언약과 복음이 후대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후대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 사역을 여러분이 해야 한다.

2. 두 번째로는 창세기에 등장한 네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불잡을 언약은 '완전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다. 평소의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미리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성령충만을 받고 말씀이 충만하면 나를 향한 미래가 보인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중으로 서밋타임을 가지고, 미래가 걱정, 염려, 근심되지 않을 정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정도, 어떤 문제 속에서 미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평안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순종하고 절대복종하여 100 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고 서밋타임을 통해 성령충만했기 때문이다. 부활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것이 부활의 완성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뿐 아니라 근원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었다. 창세기 12 장 1 절에서 3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 두 번째 인물은 이삭이다. 이삭을 통하여 불잡을 절대언약은 '절대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순종한 이삭은 한 해에 백 년의 응답을 받았다. '예스맨,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삭의 영적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를 위해서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대에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후대가 제대로 응답을 받게 된다. 창세기 26 장 12 절 말씀을 보겠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3) 세 번째 인물은 야곱이다. 야곱을 통하여 우리들이 불잡을 절대언약은 '영적욕심'이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심은 많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치있는 욕심은 '영적인 욕심'이다. 이러한 영적 욕심을 가진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락방 목사님을 보면 복음과 영적인 욕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본다. 30 명만 있어도 로마 복음화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4) 네 번째 인물은 요셉이다. 우리들이 요셉을 통하여 불잡을 절대언약은 '오직함께'이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절대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은 모든 응답을 받았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다. 그래서 요셉은 '완전복음'이 체질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고 모델적인 램넛트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론으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복음과 구원과 참된 언약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5 천 종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창조신앙부터 세계를 정복한 요셉의 영적인 믿음과 비밀까지 전달해 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4 인물과 같은 영적인 체질을 갖기 위해 24 시간 생각만 하더라도 거듭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해답을 주실 것이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서밋타임을 통하여 조금만 집중해도 요셉처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대열과 흐름 속에 있을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더욱 깊이 붙잡아야 할 언약적인 복음과 축복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를 바란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성취해 주실 그 시간표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기 말고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언약과 절대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네 인물을 능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